

대학의 심장, 도서관 변화를 꿈꾸다



마 정 미
문화평론가
neospero@naver.com

내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은 봄철 내내 매캐한 최루탄가스가 캠퍼스를 뒤덮곤 했다. 아름다운 오월, 아름다운 캠퍼스에는 각종 나무들이 신록을 자랑하고 갖가지 꽃을 피워 올렸지만 라일락 향기와 아카시아 향기도, 밤에 뿜어내는 천리향의 향기마저도 최루탄 가루에 덮여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대기가 온통 불온한 가스로 뒤덮여 불안정했는지 그 어느 해는 비도 펍 자주 왔다.

시절이 그렇다보니 대학도서관의 웅장한 서가와 고즈넉한 학구적 분위기를 꿈꾸었던 나는 불행하게도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도서관보다는 도서관 앞 광장에 앉아있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사실 집회를 외면하고 도서관 안에 있는 친구들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던 시절이었다.

대학도서관의 과거와 오늘

세월이 흘러 흘러 지금은 도서관 안팎의 풍경이 달라졌다. 도서관 앞 광장에는 더 이상 집

회가 아니라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도서관은 디지털,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맞고 있으며 그 안의 젊은이들은 무한경쟁세계로 나가기 위해 치열하게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풍경을 꼽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앞두었을 때의 풍경이다. 시험기간이 코앞에 닥치면,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이 새벽부터 도서관에 진을 친다. 일찍 가지 않으면 도서관 열람실자리를 차지할 수 없으니 도서관 자리가 차 가는 시간 즈음이면 걸음이 바빠진다. 그렇게 도서관 자리잡기에 성공하면 하루의 중요한 일과를 마친 듯하다. 이들이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다. 평소에 비해 너무 일찍 일어나 움직였으니 옹드려 잠이 들거나 친구와 밥 먹으러 나가고 커피 마시러 나가기 일쑤기 때문이다. 그 빈자리를 메꾸기처럼 옮겨 다니는 학생들의 풍경도 여전하다.

대학도서관은 그 대학의 위상을 보여준다. 명실공히 대학의 심장부는 중앙도서관이 아닐까.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은 자료의 증가와 정보전달 수단의 확대로 그 기능이 과거보다 다양화되어 수많은 정보들을 신속히 분석, 종합하여 도서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고 있다.

모든 학문의 모태이며 정보와 연구성과의 집결지이자 아크로폴리스라 할 만한 곳이 대학도서관일 것이다. 특정 대학의 수준과 저력을 알아 보기 위한 가장 일차적인 척도는 그 대학의 도서관 장서수이며 도서관의 규모, 도서관의 이용 현황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그 외관의 위용부터가 남다르다. 캠퍼스내 위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건축물에 쏟는 정성과 비용 또한 다른 단과대학이나 여타 건물보다 곱절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간과 자료, 즉 인프라 스트럭처는 도서관의 기본요소일 뿐 이용자가 없다면 도서관은 책의 무덤에 불과하다.

대학도서관은 도서 및 기타 기록들을 수집, 정리, 보존 및 축적하는 동시에 이를 교수 및 학생의 연구자료로 제공하는 봉사기관이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자료의 유통, 지식과 정보 전산망의 중추 역할을 수행한다. 뿐 아니라 대학도서관은 미래의 동량들이 그 안에서 공부하고 교류하고, 생활하는 삶의 터이자 지식을 갈고 닦는 학문의 전당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지식의 전문화, 고도화, 학문영역의 세분화, 이에 따르는 요구의 다양화 등으로 명실공히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은 자료의 증가와 정보전달 수단의 확대로 그 기능이 과거보다 다양화되어 수많은 정보들을 신속히 분석, 종합하여 도서

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가고 있다.

유비쿼터스 도서관

예전에 비하면 요즘 대학도서관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서비스는 경이롭다. 무엇보다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전자매체의 활용이 자료의 규모와 범위를 확산시키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 이용자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서와 효율적인 서비스도 제공된다.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은 웹기반의 도서관전산화 토털시스템을 가동하여 도서자료의 구입에서부터 서지데이터의 가공, 자료검색과 대출, 도서구입신청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고 있으며, CD-ROM과 전자저널, 웹DB의 적극적인 활용과 간행물의 디지털화 그리고 타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의 상호협력체제의 확대 등을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술지, 웹기반의 색인·초록 원문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 마이크로자료 등 각종 형태의 자료를 소장하여 연구와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밖에서도 언제 어디에서든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대학도서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급증하는 다양한

유형의 학술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정보화시대에 변화하는 학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대학도서관의 변화는 대학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은 공부와 휴식, 엔터테인먼트를 동시에 즐기는 신세대형 첨단 공간으로 탈바꿈 되고 있다. DVD와 멀티미디어 자료를 열람하거나 즐길 수 있고, 스타벅스와 같은 커피전문점도 도서관내에 들어오는가 하면 각종 이벤트와 세미나도 개최된다. 세계 우수대학의 도서관들은 서로 다투듯이 도서관의 건축 디자인과 내부 인테리어를 예술로 승화시키고 있다. 단순히 책과 학술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직된 도서관이 아니라 안락하고 즐거운 공간, 예술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공시족, 장미족의 아지트

그러나 이 유비쿼터스 도서관을 메우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책을 빌려보거나 학술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열람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고, 취업 준비생들인 경우가 많다. 대학생들이 책을 대출하는 경우는 리포트나 과제를 위해 책을 빌리는 경우이며 통계에 의하면 판타지 소설들을 빌려보는 비율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대학생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개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그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취업을 위해 해야 할 공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입사원서를 백번이상 내고도 취업이 되지 않는 졸업생들이 도서관에서 고

전을 읽을 여유를 갖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십장생(십대도 장래백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등 심상치 않은 조어들 이 난무하고 있다. 장미족이라는 조어도 있다. ‘장기(長期) 미취업 졸업생’을 줄여 이르는 말이다. 화려한 학점과 어학점수 등 취업에 필요한 객관적 성적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찾지 못한 이들은 장미처럼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가시를 품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취업을 하지 못한 콤플렉스 때문에 방에 틀어박혀 은둔하는 ‘칩거족’이 되기도 한다. ‘공시족(公試族)’도 있다. 각종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데, 20대 청년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안정된 직장이라고 알려진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고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 문제는 개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실업률이 7%로 나타나지만, 구직을 포기하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취업준비생들이 모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제 체감실업률은 더욱 높다. 그래서 모 일간지는 10명중 4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대다수 취업준비생이 도서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점과 토익점수 등 평가기준이 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매진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독서습관은 이후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취

안타깝게도 젊은 날에는 젊음의 가치를 모르듯이 대학생일 때는 대학도서관의 가치를 잘 모른다. 대학 때 도서관을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보다 값진 대학생활을 한 것이다.

업의 문, 그러나 막상 기업에서는 인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다. 대기업 인력 팀에서는 요즘 대학생들은 기업에서 오직 영어, 특히 토익 점수만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줄로 착각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토익점수는 좋지만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을 위기대처능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개성과 독창적인 사고, 팀워크, 책임감과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공 지식만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데, 시사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과 통찰력이 부족하다. 교양·상식은 취업을 위한 수박 겉핥기 수준이다. 책에 나온 용어만 알파하게 알 뿐, 머릿속 지식을 현상에 응용하지 못한다. 논제에 대한 토론과 논리가 명백한 주장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교양, 상식의 폭을 넓혀 응용력을 길러야 한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그것은 다양하고 깊이있는 독서만이 줄 수 있는 혜택이다.

대학도서관의 미래

많은 대학도서관들은 장서수를 자랑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도서관 평가에서 '학생 1인당 도서 및 비도서 자료수' '최근 3년간 도서구입 단가' 등 장서량이 차지하는 점수가 전체 15점 만점에 7.5점으로 절반을 차지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서수가 장서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청계천에서 헌책을 잔뜩 사와 책장을 채우는 학교도 있다고 한다.

대학은 이런 외형상의 기준을 위해 도서관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질적 가치에 투자하고 최선의 문화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터전이 학교도서관이어야 한다. 정보와 자료를 찾는 공간, 새로운 정보와 자료를 찾는 공간, 교류와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다.

대학도서관은 지식과 교양에 대한 충족, 스스로 학문의 토대를 일구어가는 능력의 함양,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고와 문화에 대한 시각을 길러내는 곳이며 이런 대학도서관의 문화는 대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인이 될 것이다. 도서관은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만나기 힘든 다양한 학문의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지식의 보고이다. 부족한 문화적 체험을 메우는 상상의 공간이며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가까운 거리에, 언제나 열려있고, 방대한 도서가 완비된 도서관이 있다면 그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젊은 날에는 젊음의 가치를 모르듯이 대학생일 때는 대학도서관의 가치를 잘 모른다. 대학 때 도서관을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구보다 값진 대학생활을 한 것이다. 